**공학작문발표 책 요약 리포트**

책 제목 : 부의 미래

학과 : 전기공학과

학번 : 201724570

이름 : 정석규

저자는 이 책에서 혁명적 부의 양면성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창의적인 기업가들과 사회, 문화, 교육 부분의 기업가들에게 수많은 기회와 새로운 삶의 궤적을 제시해주는 반면, 여러 가지 위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심층기반, 즉 ‘부’의 창출과 분배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기반이라는 것은 어느 발전 단계에서는 그 사회의 부의 창출에 적절했지만, 다른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제조 부문은 산업화 시기의 부 창출 시스템을 규정하지만 산업화 이전의 농업 경제에서는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심층 기반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체제에서나 상관없이 모든 문화와 문명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발전 단계에서의 중요한 기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혁명적 부는 시간의 재정립, 공간의 확장, 지식의 구조 변화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시간의 비동일성, 개인화로 인해 부 창출 시스템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경계가 모호해져 산업시대의 폐쇄적인 경직성과 규칙성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파급효과는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변화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공간 역시 변화에 대한 부의 이동, 반세계화와 재세계화의 대립, 우주로의 공간적 확장으로 인해 변화는 가속되어갈 뿐이다.

저자는 ‘프로슈밍’을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 생산하거나 동시에 소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부 창출 시스템에서 비화폐경제를 의미하며, 수많은 분야들이 프로슈머 경제에 의해 변화되며 혁신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급격한 시간, 공간, 지식, 프로슈머 경제 등 심층기반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위험에서도 저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위험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변화에 따라 다가올 희망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책에서 “결국 지식노동과 진전된 서비스를 향한 움직임은 최악의 경우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방의 단계를 앞당긴다.”라고 말한다.

본인은 이 책이 변화의 미래라는 주제에 맞추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과 문제를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 대두되는 주제인 ‘암호화폐’ 와 ‘블록체인’ 또한 저자가 이야기하는 혁명적 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게 되었다. 암호화폐의 투기성, 불안정성과 그에 따라 대두되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는 어디까지나 처음 나온 기술에 따른 사기꾼들의 소재라고 생각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기를 위한 기술발전의 변화가 은행의 탈 중앙화, 보안성, 투명성을 가속시키고 있고 월마트에서는 IBM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개발을 협업하는 모습을 보며 지식 구조의 변화가 각 분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도 예측하기 힘든 미래로 나아가고 있으나 더 좋은 미래를 위한 큰 움직임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